

기술시대의 生活지혜

과학기술은 우리생활을 편하게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환경오염은 갈수록 심각하며 개발된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렇게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철학자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과 철학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45년동안 과학이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만든 것을 돌이켜 보면, 그 엄청난 변화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옛날에는 아주 부잣집에만 있었던 자가용이나 수세식 화장실이 이제는 서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올 만큼 흔한 것이 되었고, 과거에는 아주 먼 거리로 여겨졌던 부산이, 이제는 아침에 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비행기로 부산에 내려가서 그 곳 일을 처리한 후에 저녁은 다시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되고 말았다.

서울 시내에 들어선 고층 건물도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5층 정도의 건물에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일어나는 컴퓨터의 발전은 훨씬 더 편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2주일 정도 걸렸지만, 지금은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는 즉시 미국에서 받아볼 수 있다. 또 예전에는 은행에 다녀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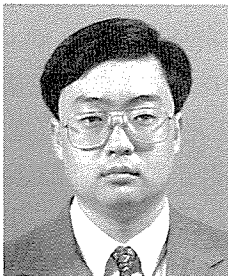
것도 귀찮은 일에 속했지만, 이제는 각종 공과금이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온라인 송금도 집에서 컴퓨터로 간단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설령 산보삼아 은행을 간다하더라도 창구에 갈 필요가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회사에서의 회의나 각급 학교에서의 수업, 심지어는 진료까지도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너무 편해진 우리생활

그 뿐만이 아니다. 유전자 공학의 발달은 보다 나은 품종을 개발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우주에 관한 연구도 나날이 발전하여 신혼여행을 달나라로 가게 될 날도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감탄만 하면서 바라보아도 좋은 지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와 수세식 변기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들다고



金度植
(건국대 철학과 조교수)

생각하고, 어쩌다 사용하게 되는 재래식 변기에도 다리가 저려움을 느끼게 된다. 분명히 어렸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다.

우리나라 중고생의 체격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커졌지만, 그들의 체질은 오히려 더 약해졌다는 최근의 보도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스포츠센터를 찾는 직장인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심각한 문제로 남을 것 같지는 않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지고 오는 단점들을 극복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선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 준 대표적인 폐단 중의 하나로 대기 오염을 들 수 있다. 옛날에는 부의 상징이던 자가용이 이제는 필수품에 가까게 되었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공장의 수도 나날이 늘게 되었다. 자동차의 배기통에서 나오는 매연, 그리고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와 그 곳에서 나오는 폐수가 우리의 환경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서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매연을 전혀 내뿜지 않을 수는 없다. 공장에서 연기가 안 나온다는 것은 그 공장이 문을 닫았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를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기로 가는 자동차도 발명되어 시험 가동중이며,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이는 정화장치도 나

날이 발전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공해줄이는 장치 절실

그렇다면, 대기 오염을 해결하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일 수 있다. 과학자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연구에 힘을 쓰면 해결책이 곧 나오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과학의 발달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다. 기술이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었을 때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아무도 그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결국 새로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공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과학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매연의 경우에, 정비 공장에서 조금만 손을 보면 시커먼 연기를 내뿜지 않을 수 있는 버스나 트럭들이 버젓이 시내를 다니며 검은 연기를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또 공장에서 매연이나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시설을 운용하는 자금이 아까워서 몰래 방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를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면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과학자들이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다.

기술을 개발해 놓고 사용을 안하는 것보다 더욱 위험한 일이 있다. 이는 개발된 기술을 악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해커들이 주요 기관의 전산망에 들어와서 중요한 기록들을 없애버리거나 심지어는 비밀 문서를 빼돌리는 사건이 종종 신문 지상에 등장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술 그 자체는 나무랄 것이 없지만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남에게 심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개발된 기술 악용해서야

과학의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현대화된 군사 무기들도 그것이 악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피해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볼 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무기를 사용하면 온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발달된 과학기술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꼴이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듯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기술만 발달해서는 곤란하다.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방법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는 것만큼 중요하다.

인간을 선하게 하는 것은 과학자의 몫이라기 보다는 철학자의 몫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과 철학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㉞